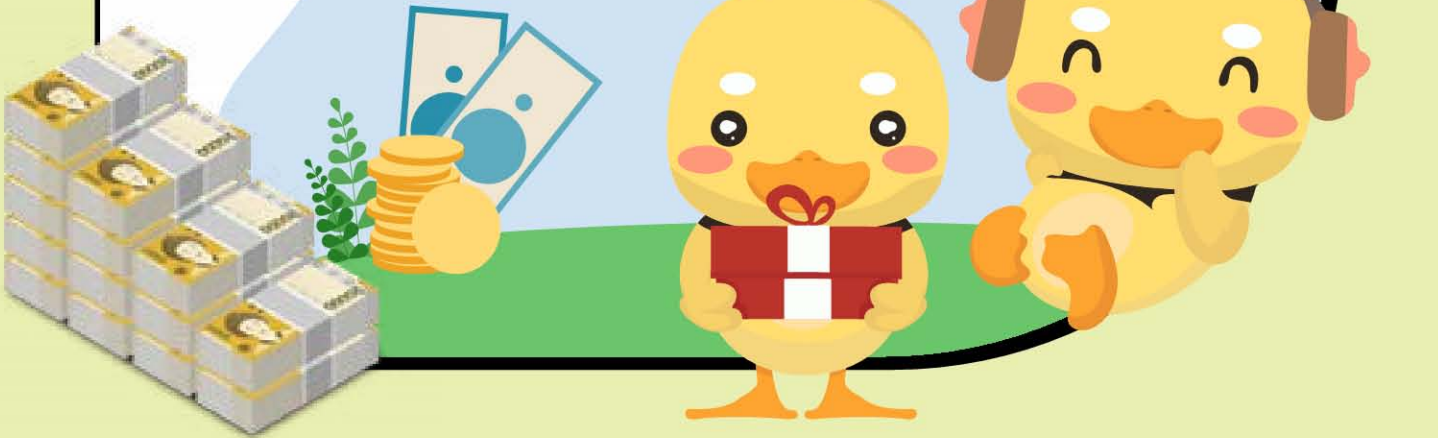


‘돈 되는 오리’

HPAI로 인해 오리 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HPAI 발생농장은 물론 예방적 살처분 농가들은 더욱 상심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듯이 재입식의 그날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리농가에서 농장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오리 사양관리, 방역요령 등을 게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방역 매뉴얼 V

차단방역(biosecurity)이란 동물질병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차단 방역은 가축 질병이 없는 건강한 동물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일단 전염병이 걸리면 신체적인 손실과 함께 경제적인 손실도 초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가축이면 제대로 방역하지 않으면 전체 사육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예방이 최우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 차단 방역이다.

차단 방역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어려운 기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농장에서 행해지는 청소와 소독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에 반석가금연구소의 오리 농가 사육유형별 차단 방역 매뉴얼을 연재해 농가들의 자발적이고 올바른 차단 방역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오리사 세척과 소독 I

세척과 소독은 병원체들이 가축의 체내로 침투하기 이전까지의 단계를 통제하는 가장 선제적이며 효과적인 차단 방역 조치이다.

오리사 내에 쌓이는 유기물질은 병원체를 지니고 있다가 농장의 내부나 외부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기물질은 질병 전파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반드시 세척 및 소독을 통해 제거해야 한다.

세척은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유기물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유기물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농장이나 오리군에 병원체를 옮길 수 있는 유기물들을 제거한다.

소독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사멸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을 직접 처리하여 사멸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나 유기물에 의해 보호된 병원성 미생물들은 소독제에 의해 쉽게 사멸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잘 세척하고 소독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척과 소독은 차단 방역의 필수요소로서 세척만 잘해도 병원성 미생물의 95%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소독은 주로 세척 후 시행하거나, 세척이 불가능한 곳의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킬 목적으로 시행하며, 적절한 소독제를 선정하여 효과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면 효과가 더 좋다.

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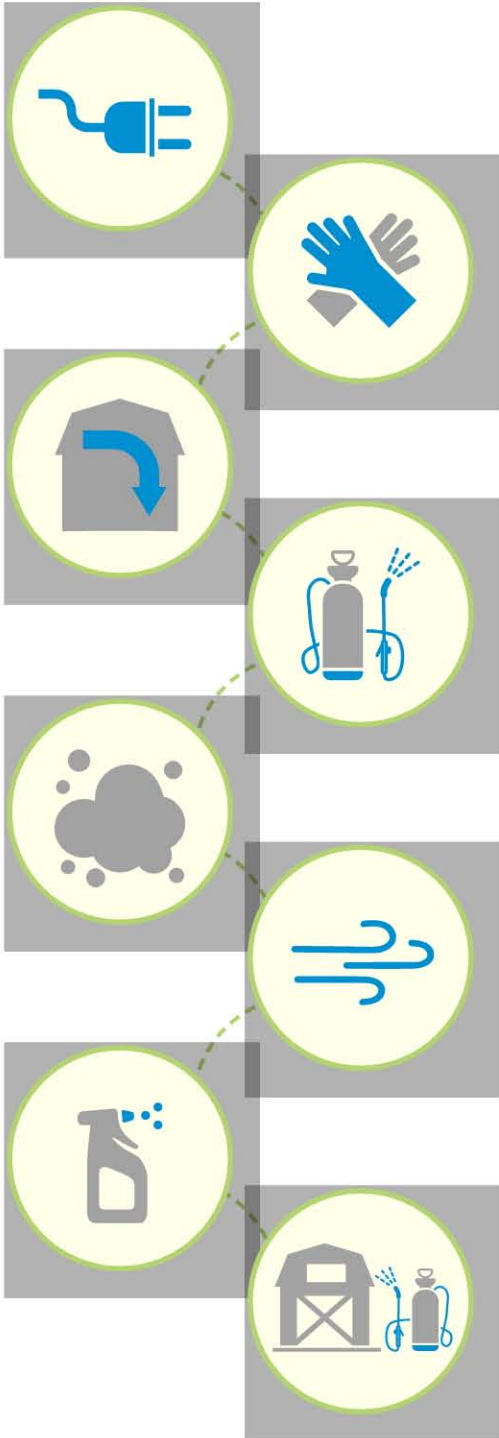
청소 후, 소독 전에 실시하는 물 세척은 소독 작업 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세척은 오물이나 분변, 먼지, 거미줄, 기타 유기물 등을 제거함으로써 소독 효과를 높이고, 더 적은 양의 소독제를 사용하고 소독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비용 절감의 효과도 볼 수 있다.

유기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소독은 효과적일 수 없으므로 케이지, 천장, 벽면, 바닥 전체를 물로 씻어 먼지 및 오염물(유기물)을 확실하게 제거한다. 수세의 경우 고압 세척기(180psi)를 사용하며, 뜨거운 물(93℃ 이상)과 함께 계면활성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유기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오리사 내부에서는 뿔(박스, 덮개 및 날개 등), 환기창, 기둥과 천장, 선반, 급수기 파이프, 전선 연결부 등의 청소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완전히 세척 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받침대를 활용할 수 있고, 어두운 부분의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손전등 등의 별도 조명을 이용한다. 세척이 종료되었을 때 먼지나 부스러기 등이 보이지 않아야 하며, 완전한 세척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물의 외부 세척 시에는 환기창, 물받이, 배수구, 콘크리트 통로 등의 청소에 주의한다.



효과적인 오리사 세척방법



- 1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오리사 내부의 전원을 차단한다.
- 2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공급할 물과 고압 세척기를 연결한다.
- 3 오리사의 가장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걸어 나오면서 세척을 실시하고, 천장, 벽, 바닥의 순서로 위에서 아래로 세척한다.
- 4 세척은 유기물이 잘 떨어질 수 있도록 고압으로 하고, 세척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압으로 세척액을 분사한 뒤 20~30분 정도의 접촉 시간이 지난 후에 고압으로 물 세척한다.
- 5 세척 시 유기물이나, 먼지, 거미줄 등이 모두 제거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분사한다.
- 6 세척이 끝나면 물기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습하면 소독 효과가 저하된다.
- 7 진드기가 발생한 오리사는 살충제를 7일 간격으로 2회 분무해야 하고, 진드기가 없는 농장에는 크레졸 계통 소독제, 살충제 혼합액을 물에 희석하여 1회만 분무한다. (용량 예: 폭 9m×길이 95m×높이 5m 오리사내 6단 케이지 시설에 희석된 소독액 1,200ℓ 소요). 그 이후에는 다른 소독액을 4일 간격으로 3~5회 분무한다.
- 8 오리사 내부의 세척뿐 아니라, 오리사 외부를 포함한 농장 내 세척이 가능한 장소들은 모두 세척하도록 한다.

사육유형별 적용 방안



축종별

종 오리

케이지는 녹이 슬기 쉬워 케이지 구입 시 도금이 잘된 것을 선택하고, 세척제 선택 시 부식성이 적은 것을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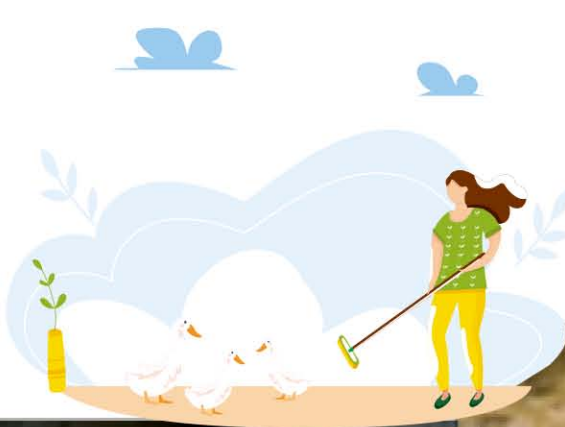
육용오리

출하하여 오리사가 비었을 때 대대적으로 세척한다.



사육형태별 · 환경별

-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연변 등으로 오리사가 불결해지기 쉽고 따라서 질병의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파리와 모기 등 위생 해충이 생기지 않도록 분변을 자주 제거해주고 수시로 세척한다.



자료출처: 반석가금연구소

